

# 중국어 문법용어로 본 학술용어 번역의 문제

임 병 권\*

---

◁ 목 차 ▷

- |                     |                  |
|---------------------|------------------|
| 1. 서론               | 3.2.2 체계성        |
| 2. 학술용어인 한자어        | 3.2.3 정확성        |
| 2.1 한국어 속의 한자어      | 3.2.4 축약성        |
| 2.2 학술용어인 한자어       | 3.3 문법용어의 체계성 문제 |
| 3. 중국어 문법용어 번역의 문제들 | 3.3.1 '단어(單語)'   |
| 3.1 문법용어 번역의 원칙과 현실 | 3.3.2 '형태소(形態素)' |
| 3.2 중국용어 번역자의 지향    | 3.3.3 '품사(品詞)'   |
| 3.2.1 통용성           | 4. 결론            |
- 

## 1. 서론

언어는 의사소통의 도구이면서 동시에 사유진행의 도구이다. 따라서 어떤 한 문화가 고급지식과 선진문물을 잘 생산하고 보급하기 위해서는 훌륭한 전문용어의 체계를 갖추는 것도 중요한 하나의 조건이 된다. 그리고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문화들 사이에 고급 지식과 선진 문물이 잘 유통되기 위해서는 전문용어의 올바른 번역이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훌륭한 전문용어의 체계를 갖추는 것과 전문용어를 올바르게 번역하는 것은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진다. 외국의 새로운 전문용어를 자국어로 번역할 때 자국어의 특성을 잘 살려 번역하지 않으면, 자국 전문용어가 훌륭한 체계를 갖추기 어렵게 된다. 전문용어가 표현하는 고급지식은 늘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갈 것이며, 그것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새 용어를 만들거나 외국 용어를 차용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한국 학술용어에 대한 관심을 중국어 문법용어 번역의 문제를 검토

---

\* 대전대학교 외국어문학부 중어중문학전공 교수

하는데서부터 풀어나가려 한다. 글의 전개는 우선 한국의 학술용어와 필연적 관계를 지니는 한자어의 문제를 간략하게 살펴보고, 다음으로 중국어 문법용어의 번역과 조어에 나타나는 현상과 문제들을 검토한다. 그리하여 문법용어 번역과정에서 드러나는 중국 한자용어의 특징과 한국 및 일본 한자용어의 문제점을 정리하고, 기존 문법용어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예로서 '단어, 품사, 형태소'를 살펴본다.

근대적 중국문법학이 《마씨문통》(1899년)에 의해 성립한 이래로 중국어문법의 용어는 매우 많은 교체와 변화를 겪어왔다. 여기서는 이들 과거의 용어들은 잠시 잊혀두고 현재 주로 학교문법에서 사용되는 기본적 용어들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문제에 관해서만 다루기로 한다.

## 2. 학술용어인 한자어

중국어 문법용어 번역의 특수성은 한자어라는 한 마디로 집약할 수 있다. 한국어에서는 한자어라는 좀 특별한 외래어가 매우 중요한 부분을 이루며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중국어 문법용어의 번역은 외형상 중국 한자어를 한국 한자어로 바꾸는 것이 대부분일 것이며, 바꾸기의 과정에는 기존 어휘를 채용하거나 신조어를 만드는 일이 포함된다. 그리고 근대학문에 관한 한국의 한자 전문용어는 대부분 일본 용어를 채용한 것이다. 그러므로 중국 한국 일본 세 나라의 한자어를 함께 다루게 된다.<sup>1)</sup>

한중일 삼국의 한자어는 반드시 공통된 특성들을 가질 것이며, 동시에 서로 구분되는 개별적 특성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자국의 언어체계 안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각각 다르다. 여기서는 주로 한국 한자어의 문제에 국한하여 살펴본다.

### 2.1 한국어 속의 한자어

한자어는 한반도에 전래된 이래로 한국어 고유어휘와의 경쟁에서 계속 우세를 보였으며 따라서 역사의 흐름에 따라 전체 어휘체계 안에서 절대적 우위를 차지하게 되었다(이용주1974, 심재기1990). 이제는 이미 한자어 없는 한국어를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어 속에서 한자어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의 비중과 분포에 관한 통계자

1) 한국에 유입된 일본 한자어의 종류에 관해서는 심재기(1990) 참조.

료를 이용주(1974)<sup>2)</sup>는 다음과 같이 보고한다.

- 1) 한자어가 차지하는 비중:  
 사용빈도 1-100위인 어휘의 7%, 901-1000위의 51%, 2401-2500위의 63%.
- 2) 한자어와 비한자어의 어휘수 대비:  
 전체 어휘 56,096개 중 39,563개로 약71%가 한자어.
- 3) 품사별 한자어 분포:  
 명사가 30,567개로 39,563개의 약 77%, 전체 어휘 56,096의 약 54%.

그리고 순한국어와 한자어의 분포관계와 관련한 한국어 어휘의 특징은 다음 세 가지를 들 수 있다(이충우1994)

- 1) 생활용어로는 고유어가, 개념어로는 한자어가 많이 쓰인다.
- 2) 기초어휘에서는 고유어의 체계가, 전문어휘에서는 한자어가 발달하였다.
- 3) 전체적으로 2음절어가 많고 동음이의어가 많은데, 이것은 한자어의 큰 비중 때문이다.

정리하면, 한국어 속의 한자어는 절대다수가 명사이고, 주로 이음절인 전문어휘이다. 그리고 일상 생활과 관련된 기초어휘로는 순한국어가, 개념 표시를 주로하는 전문어휘에는 한자어가 주로 사용된다.

이와 같은 한자어의 비중과 분포 때문에 한국어의 일반용어 및 전문용어는 근본적으로 어소체계의 중복성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 전문용어 가운데서도 해당 전문분야의 기본적 개념과 물질을 표시하는 말은 순한국어 중심의 기초어휘를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그리고 순한국어는 복합적인 개념을 표시하기 위한 형태의 확장이 어렵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한자어를 사용하게 된다. 그러면 해당 전문분야의 용어체계 안에 동일한 개념 및 물질을 지시하는 단어·어소가 두 개 이상 존재하게 된다. 예를들면 '날말'과 '단어'이다.

## 2.2 학술용어인 한자어

현재의 한국 학술용어의 형성과정을 언어기초의 방면에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정리할 수 있다: 1) 19세기 말까지의 전통 한자어의 기초 위에, 2) 많은 일본 한자용어가 첨가되었고, 3) 주시경 이래 순한국어의 신조어 노력이 있었으며,

2) 문교부의 1955년 '한국어 어휘사용의 빈도조사 제2편'에 의한 통계.

4) 근래는 영어 용어가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유입되고 있다(이기문1990 참조).

이기문(1990)은 한국 학술언어의 심각한 위기를 타개할 길을 탐색하면서, 1) 전통적으로 확립되어온 한자어의 술어체계를 유지하면서, 2)순한국어로 보충하되 실용성을 고려하여 자연스럽게 할 것을 제기한다. 그리고 학자들이 기존 학술용어의 어원과 조어법을 숙지·유의하고 신조어 만들기에 신중하여, 학술용어의 체계성과 새로운 용어의 생산능력을 함께 확보할 것을 주장한다. 이는 실질적으로 수많은 영어 용어들을 주로 한자어 용어로 교체할 것을 주장하는 것이다.

영어를 음역한 새로운 형태의 외래어로 한국어의 기존체계를 다시 흐트러뜨리지 말고, 한자어의 뛰어난 체계성과 신조어 능력에 의지하여 영어 용어를 한자어로 의역하자는 것이다.

### 3. 중국어 문법용어 번역의 문제들

그동안 우리 학계에서 중국어 문법용어의 번역 문제는 별로 많이 다뤄지지 않았다. 중국어 문법용어의 올바른 번역과 표준화에 관해서는 맹주역(1987)이 가장 먼저 문제를 제기하였고, 다음으로 중국언어연구회가 중국어 문법용어 통일시안을 발표하였다(1991년6월). 이후로는 대체로 중국언어연구회의 통일시안이 널리 채용되었으며 개별적인 수정 보충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각종 중국어 교재나 문법전공 서적에 사용되는 문법용어들은 잘 표준화되지 않고 있으며, 중국의 원용어를 그대로 차용하여 한자로 표기하는 경우도 많다. 중국어학자들은 대체로 번역용어의 견해차를 별로 심각하고 긴급한 문제로 느끼지 않는 것 같다. 이것은 용어의 표준화에 관한 인식 부족도 있지만, 번역 대상인 중국용어가 한자어라는 특수성에도 중요한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 3.1 문법용어 번역의 원칙과 현실

중국언어연구회는 문법용어 통일시안(1991)과 함께 번역용어 채택의 원칙을 제시하였는데, 다음은 그 자구표현을 약간 다듬고 해당 예를 든 것이다.

- ① 기존용어 대체. 일반적 용어 또는 국어학 영어학 등의 기존 용어에서 함의가 같거나 유사한 것을 채택하여 대체한다. 예: 대명사[代詞] 전치사[介詞] 목적어·객어[賓語] 관형어[定語] 부사어[狀語] 접사[詞綴] 접두사[前綴] 3)

- ② 신조어 만들. 기존 대응용어가 없을 경우, 유사 용례에 의하여 새로 만든다(新造). 예: 대체사(代替詞) 소개사(紹介詞) 한정어(限定語) 상황어(狀況語) 연동문(連動文)
- ③ 원어 차용. 마땅한 기존용어나 신조어를 찾기 어려울 경우에는 원용어를 그대로 차용한다. 예: 대사(代詞) 개사(介詞) 빈어(賓語) 정어(定語) 상어(狀語).

이 시안의 원칙은 문법학자들의 공통된 중요 지향이 집약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번역자들은 일반적으로 이상과 같은 논리적 순서로 번역용어를 채택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 용어 채택의 결과는 '대명사(代名詞), 대체사(代替詞), 대사(代詞)'의 예처럼 여러 번역어가 함께 채택된다. 서로 다른 여러 번역자가 각각 다른 번역을 할 수도 있고, 동일 번역자가 번역할 때마다 다른 용어를 채택할 수도 있다.

이처럼 번역용어가 서로 달라지는 것은, 번역자 마다 용어간 대응의 적정도에 대한 판단, 그리고 새 용어를 만드는 방법 등에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그러한 차이는 번역자의 지향이 반영된 결과이며, 각 번역자의 지향은 다시, 번역의 일반원칙 외에 중국어 용어의 간섭과 영향을 받아 형성된다고 할 수 있다.

중국어 문법용어의 번역은 외형상 한자어를 한자어로 번역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대상언어인 중국어 용어의 간섭과 영향을 받게 마련이다. 간섭과 영향은 대체로 둘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 한자로 된 원문 용어의 차용이 쉽다. 한자가 이미 우리 언어생활에 사용되고 있는 문자이므로 영문용어를 그대로 차용하여 옮겨쓰는 것보다는 부담감을 덜 느낀다. 전문용어의 표준성 및 통용성에 덜 유의하는 번역자의 경우에는 너무 심한 차용을 하게 되기도 한다. 둘째, 전문용어로서 중국 용어의 특징에 영향을 받는다. 중국 문법용어는 한국 및 일본의 한자어 문법용어에 비해 좀더 한자어의 특징을 잘 구현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 번역자의 지향과 원칙에 끼친 중국어 용어의 영향이 어디까지이고 어느 정도인지는 잘 알 수 없다.

### 3.2 중국용어 번역자의 지향

중국어 문법학자들이 번역용어 선택에 관해 가지는 지향은 다음 몇 가지로 나눌

---

3) 번역용어 배열관계 등의 약속.  
 '목적어·객어[賓語]': 한국 용어 '목적어'와 '객어'로 번역되는 중국(외국)용어 '賓語'.  
 '介詞[전치사]': 중국 용어 '介詞'의 한국 번역어 '전치사'.  
 '介詞·전치사·前置詞·preposition': '介詞'의 '한국어, 일본어, 영어'의 번역어.  
 '소개사(紹介詞)': 한국 한자용어 '紹介詞'.

수 있다.

### 3.2.1 통용성

기존 용어를 준용하려고 노력하며, 새로운 용어를 사용하는데 부담을 느낀다. 좀더 구체적으로는, 이미 국문법과 영문법의 용어에 익힌 학생들이 별도의 용어를 배우지 않도록, 새 용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한다. 시안의 원칙 제1번은 이러한 공통된 지향의 표현이다. 그래서, 중국문법에만 존재하는 전용의 용어를 가능한 한 회피한다.

이렇게 새 용어를 회피하고 기존 용어를 준용하려는 원칙은 늘 정확성·축약성 등을 추구하는 지향과 충돌을 일으킨다. 예를들어 '代詞'의 번역어는 대략 다음과 같은 시간적 교체과정을 보였다고 할 수 있다. '대명사'는 온전히 기존용어이고, '대체사'는 '대체'까지가 기존용어이며, '대사'는 전혀 새로운 용어이다. 기존 용어의 통용성을 중시하는 지향이 정확성과 축약성을 놓고 다투고 있다. 중국어 문법의 '代詞'가 '여기, 어디, 언제, 얼마, 어떻게' 등을 포함하므로 '名詞'를 대체하는 품사가 아님을 반영하는 정확성과 축약된 음절 수의 축약성이다.

번역용어의 교체: 〈代詞 — 대명사 — 대체사 — 대사〉

번역원칙의 교체: 〈원어 차용—기존어 대체—신조어—원어 차용〉

번역자의 지향: 〈정확성 — 통용성 — 정확성 — 축약성〉

다음 예에서, '방향, 정도'는 익숙한 어휘이지만 '추향, 정태'보다 정확성이 떨어진다. '來, 去'는 '방향' 아닌 '추세와 동향'을 표시하며, '정도(程度)'는 '정황과 상태'를 설명하는 하위개념이다.

趨向動詞    방향동사·추향동사    '來, 去, 上, 下, 進, 出, 回, 過, 起'

情態補語    정도보어·정태보어    '跑得滿頭大汗.'

중국어학자들이 통용성을 중시하는 경향은 한국 사회 일반에서 음역한 전문용어를 마구 만들어 사용하는 것과는 대조적인 현상이다. 중국문법학자들은 '인프라, 아이티, 씨이오, 서포터스' 보다는 '기반시설, 정보기술, 대표이사, 지지자'라고 쓰

고 싶어 한다. 이는 표의성을 특징으로 하는 중국어의 영향일 수 있다.

### 3.2.2 체계성

중국 용어의 체계성을 부러워한다. 중국 용어는 그 지시대상 물질 및 개념이 지니는 계통·층위의 관계를 언어형태로 표시한다. 이 체계성의 문제는 '말'과 '단어' 중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와는 별개의 일로서, 용어체계 속에 순한국어와 한자어 단어 및 어소들이 섞여 사용되면서도 체계성을 가질 수는 있을 것이다. 다음은 중국 용어와 한국 용어의 체계성이 대비되는 예이다.

<u>중</u>	<u>한</u>	<u>일</u>	<u>영</u>
詞組	구	句	phrase
詞	단어·낱말	單語	word
詞素	형태소·어소	形態素	morpheme
詞根	어근	語根	root
詞尾	어미	語尾	ending
詞綴	접사	接辭	affix
前綴	접두사	接頭辭	prefix
後綴	접미사	接尾辭	suffix
實詞	실사	實詞	content word
虛詞	허사	虛詞	form word
實素	실어소·실질형태소·어휘형태소	語彙的形態素	lexical morpheme
虛素	허어소·형식형태소·문법형태소	文法的形態素	grammatical morpheme
名素	명사어소		
形素	형용사어소		
名詞	명사	名詞	noun
體詞	체언	體言	nominal
用詞	용언	用言	verbal

單純詞                      단순어                      單純語                      simple word

### 3.2.3 정확성

중국 용어가 가지는 정확성 즉, 구체성과 정밀성의 특장을 부러워한다. 대부분 이 복합어인 중국 용어는 그것을 구성한 어소들이 각각 구체적이고 독자적인 의미 내용을 가지며 그것이 일반언어에서 쓰이는 그 어소의 의미와 무관하지 않다. 이러한 구체성 정밀성은 유의어 관계인 어소들로 된 복합어의 경우에 더욱 현저하다. 이와 같은 구체성과 정밀성을 구현하려면 많은 새로운 용어의 만들기가 불가피하다. 중국어 용어들을 예를들면 다음과 같다.

補充結構	보충구조:	앞 성분을 뒷 성분이 보충설명하는 구조관계
謂補結構	술보구조:	내용이 '술어-보어'인 보충구조
動補結構	동보구조:	술어가 동사인 술보구조
形補結構	형보구조:	술어가 형용사인 술보구조

祈使句	명령문:	祈願과 使役의 문장
稱代	칭대:	인칭대사류의 기능인 '호칭과 대체'
指別	지별:	지시대사류의 기능인 '지시와 구별'

意味	의미	함축된 뜻, 분위기, 기분, 맛.
意義	의미·의의	①문자·기호가 표시하는 내용. ②가치, 작용.
語音	음성·언어음	音聲·言語音    speech sound:                      말소리
聲音	음성	音聲·聲            voice:                      인간·동물의 발성기관에서 나는 소리
主語	주어	主語                      subject
賓語	목적어	目的語·客語            object

### 3.2.4 축약성

중국어의 편리한 축약과 결합에 의한 개념화를 부러워하며, 음절 수가 많은 어

휘를 기피한다. 중국어는 기본적인 단어와 어소가 단음절이며, 어소·단어·구의 경계가 모호한채 붙여쓴다. 따라서 '단어+단어' '단어+어소' 형식의 복합어를 구성하기가 매우 쉽다. 예:

詞義(낱말의 뜻), 新詞(새 낱말), 難詞(어려운 낱말), 方言詞(방언 낱말)  
 介賓詞組 개빈구·전목구·전치사목적어구 preposition-object phrase  
 實素 실어소·실질형태소·어휘형태소: 語彙的形態素: lexical morpheme  
 虛素 허어소·형식형태소·문법형태소: 文法的形態素: grammatical morpheme

번역자의 이들 지향은 서로 복잡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데, 가장 문제되는 것은 첫 번째의 통용성과 다른 세 지향이 대립이다.

한국(과 일본)의 문법학자들은 중국용어의 특징을 평가하여 새롭고 낯선 용어를 만들거나 차용하려 한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자국의 한자어 전문용어의 체계성 정확성 생산성을 향상시키려는 시도이다. 그렇지만 그들은 또 한편으로는 한자어를 외래어로 사용하는 자국 언어대중의 새 용어에 대한 부담을 염려한다. 그리고 한편으로 약간은 기존용어의 권위와 편의성을 고려하게 된다.

이와 같은 염려·고려는 표음문자를 사용하고 다음절적 언어인 한국어와 일본어의 언어대중에게는 당연한 것일 수 있다. 그들의 어감은 중국의 언어대중과 달리 언어와 지시대상과의 관계를 좀더 임의적인 것으로 파악할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품사' '형태소' 등과 같이 문법용어의 체계성을 해치는 말이 고쳐지지 않고 묵수되는지도 모른다.

### 3.3 문법용어의 체계성 문제

전문용어의 세계에서 체계성은 매우 중요한 가치이다. 용어의 체계성에 관해서는 개념의 계통관계와 조어법의 정합성의 두 가지 문제를 생각할 수 있다. 전자의 체계성은 '용어의 형태와 의미 즉, 용어를 구성한 어소의 형태와 배열형식, 범주표시 어소의 존재, 용어의 음절 수 등이 그 용어의 지시대상인 개념 및 물질이 지니는 체계 및 계통 관계를 표현하는 성질'이라 정의할 수 있다. 전문 학술이 사태와 물상을 파악하는 중요한 도구로 구조를 사용하는 이상 전문용어에 있어서 이러한

체계성은 불가결의 것이다. 그리고 후자의 체계성은 개별 용어의 조어법이 다른 용어들과 통일성을 가지는 문제로서, 새 용어를 만들거나 확장하는 조어법상의 생산성과도 연결된다.

초보적인 관찰에 따르면 일본에서 처음 번역되어 도입된 한국의 언어학 및 중국어문법 용어들 중 몇몇 기본 용어는 전체 용어의 체계성을 해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는 우선 '단어, 형태소, 품사'의 세 용어를 살펴본다.

### 3.3.1 '단어(單語)'

'詞(word)'는 '單語, 語, 詞, 言'의 넷으로 번역되는데, 이는 일본의 것을 거의 그대로 채용한 것이다. 한국에서는 보통 '어, 사, 언'을 복합어의 어소로만 쓰는데, 일본에서는 '語'를 단어로 자유로이 사용하며 '詞, 言'은 복합어의 어소로만 사용한다. 중국어 '詞'를 포함한 복합어들을 그 대응 번역어에 의해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 詞: 단어, 어, 사(詞), 언; 單語, 語, 詞, 言; word ]

- ① '어': 조어법[構詞法] 어근[詞根] 외래어[外來詞]  
어구[詞語] 어휘[詞彙] 어순[詞序]
- ② '사': 품사[品詞] 실사[實詞] 허사[虛詞]  
명사[名詞] 전치사[介詞] 감탄사[嘆詞] 의성사[象聲詞]  
시간(명)사[時間詞] 처소사·장소(명)사[處所詞]  
동량사[動量詞] 수량사[數量詞] 복합량사[複合量詞] 준량사[準量詞]
- ③ '언': 체언[體詞] 용언[用詞]
- ④ 기타: 단어[詞] 형태론·어휘론[詞法] 품사성격·통사적성격[詞性] 접사[詞綴]
- ⑤ '어, 사'의 결합:  
단순어·단순사[單純詞] 합성어·합성사[合成詞] 어소·사소[詞素]  
복합어·복합사[複合詞] 파생어·파생사[派生詞]  
단음절어·단음사[單音詞] 다음절어·복음사[複音詞] 이음절어·쌍음사[雙音詞]

이와같은 '詞'의 복잡한 대응관계는 문법학의 기본개념을 표시하는 용어가 통일

성을 잃은 예라 할 수 있다. 당초 일본인들은 '詞'를 품사분류에 관련된 어소로, '語'(단어)는 조어법과 관련된 어소 및 단어로, '言'은 實詞의 두 부류를 표시하는 어소로 쓴 것 같다. 이것은 단어 층위 안에서 하나의 체계를 이룬 것이라 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작은 층위 안의 체계는 '단어'라는 공통의 계층관계를 표시하지 못하고 있어 오히려 전체적 체계성을 해치고 있다. 우리는 이 때문에 문법수업의 초입단계에서 흔히 '품사, 명사, 체언, 단순어'들에 의해 지칭되는 물건이 모두 똑같이 '단어'의 층위에 속함을 일부러 설명하게 된다. 그리고 '어'와 '사'가 경합하는 ⑤의 예들은 한국어 번역에서 기존용어 '단순어'등의 '어'를 '사'로 바꾸어 통합하려는 어감의 지향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3.3.2 '형태소(形態素)'

[ 詞素, 語素; 형태소, 어소, 사소(詞素); 形態素, 語素; morpheme ]

'詞素'(morpheme)는 한국과 일본 모두 초기에는 '형태소'로만 번역되었다가 나중에 '어소, 사소'로도 번역되었다. '형태소'를 살피기 위해서는 '단어 음절 글자'에 관한 몇 벌의 용어들을 함께 볼 필요가 있다.

<u>영</u>	<u>한</u>	<u>일</u>	<u>중</u>
morph	형태	形態	語子
allomorph	이형태	異形態	詞素變體, 語素變體
morpheme	형태소	形態素	詞素, 語素
morphemics	형태소론	形態素論	詞素學, 語素學
morphology	형태론	形態論	詞法, 形態學
phone	(단)음	(單)音	音子
allophone	(변)이음 <sup>4)</sup>	(變)異音	音位變體
phoneme	음소	音素, 音韻	音素, 音位
phonemics	음소론	音素論, 音理學	音位學

4) 특정한 phoneme음소의 구성원인 phone단음. 중국어는 자연언어 속에서 사용되는 음성 [b]는 변이음의 관계이며, 음운체계에서 하나의 음소 [p]를 구성함.

phonology	음운론	音韻論	音韻學
graph		字(母)	書寫符號
allograph		異體(字)	字素變體, 書位變體
grapheme	자소	字素, 單位文字	字素, 書寫單位
graphemics	자소론	字素論	字素學, 字位學
graphology	문자학 <sup>5)</sup>	文字學	文字學

이상 언어학의 기본개념 '형태소, 음소, 자소' 등에 쓰인 한자 '素'의 의미는 '기본 성분'로 해석된다.<sup>6)</sup> 그런데 문제는 단어의 구조관계이다. '음소, 자소, 원소' 등은 '음절 구성의 기본성분' '글자 구성의 기본 성분' '근원적인 성분'등으로 해석되는 수식구조이다. 그리고 '음소, 자소'에서 '음, 자'는 각각 '음소, 자소'의 상위개념인 '음절, 글자'이다. 반면에 영어 'morph'에서 온 '형태'는 '형태소'의 상위개념이 아니다. '형태소'는 '단어'의 구성성분이며 따라서 '성분인 형태'라는 동격구조로 읽을 수밖에 없다.

이처럼 '형태소'는 그 내부 구조관계가 '음소, 자소'와 일치하지 않는 특수한 조어법으로 인하여 용어의 체계성을 해치고 있다. 그 때문에 '형태소'라는 용어를 위해서는 특별한 설명이 필요하며 분석이 안되는 한덩이로 말의 파악되기 일쑤다.

### 3.3.3 '품사(品詞)'

[ 詞類: 품사, 사류: 品詞, 語類: word-classes, parts of speech ]

[ 兼類: 겹품, 겹류 ]

'詞類'(word-classes)는 한국과 일본에서 거의 모두 '품사'로 번역되며, 드물게 한국에서는 '사류(詞類)'로, 일본에서는 '語類'로 번역된다. 양국 모두에서 기존 '品詞'의 압도적인 권위에도 불구하고 '단어의 類'를 표시하는 '詞類'와 '語類'로 교체하는 의견이 제기된 것이다. 문제는 '品'과 '類' 중 하나의 선택, 그리고 어소의 배

5) 이정민은 graphology가 graphemics'자소론'과 같다고 말함.

6) 한자 '素'의 의미는 대체로 '흰 (비단), 단순한(색깔), 채식(의), 평소, 본바탕의, 사물의 기본적·근본적 성분'등으로 정리되며, 그 용례를 들어보면 각각 '素服, 素描·素朴, 素食, 素質, 平素, 要素·色素'등이다.

열순서이다. '品'자의 문제는 '兼類'7)를 '겸류, 겸품' 중 어느 쪽으로 선택할 것인가와도 관련된다.

'品詞'(parts of speech)라는 용어는 일본에서 明治시대에 번역되었다가(日本文法事典) 나중에 한국과 중국에 전해진 것으로 보인다.8) 일본에서 '品詞'가 정착되기 전인 에도시대에 네덜란드 문헌을 번역하면서 '詞品'이란 말이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데(예: <和蘭詞品考>), 어째서 나중에 '品詞'로 바뀌었는지는 잘 알 수 없다.

한국인들은 흔히 '품사'라는 용어를 분석되지 않는 한 덩이의 임의적 약속부호로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이익섭은 자신의 저서 『국어학개설』에서 이렇게 말한다: "품사란 단어를 그 문법적 성질에 따라 분류한 한 갈래 한 갈래를 가리킨다. 품사는 곧 단어들의 유(類 word-class)인 것이다." 즉, '品詞'를 '詞의 類'라는 말로 다시 한번 설명하여야 한다. 이것은 '품사'라는 용어가, 다른 명사 '品名, 名詞'등과는 달리, 한국인들이 일반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한자어 상식에 의해 단순히 어소분석이 안 되기 때문이다.

'品詞'는 동사 品 분류하다9)와 명사 詞 '날말'이 결합하여 '갈래(類)로서의 분류된 날말'의 의미를 구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와같은 어소분석이 쉽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원인은 다음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한국어에서는 '품'이란 말이 '분류하다'라는 의미로 잘 쓰이지 않으며, 주로 '물품, 품성, 등급'의 뜻으로 쓰인다.10) 한국인들은 때로는 '품'이 '구분, 평가하다'의 의미로 사용된 한자어에서조차 그것을 명사 '품질'의 뜻으로 바꾸고 구조관계를 재해석한다. 예를들면, '품평'은 본래 '평가하다'인 두 어소 '品'과 '評'의 연합구조인데, 국어사전은 '품질에 대한 평정'의 수식구조(또는 '목-동'구조)로 해석한다. '품등척도법'의 '품등'은 '등위를 매기다'(동목구조)인데, 국어사전은 '품질과 등급, 또는 품질의 등급'(연합구조 또는 수식구조)이라고 잘못 해석한다.(새우리말큰사전)

둘째, '品詞'와 같은 구조의 단어가 많지 않다. 한국 한자어 가운데서 '동사어소

7) '兼類'는 어떤 단어가 여러 품사의 기능을 겸하는 것을 말함. 예) 豐富: 1)형용사 '풍부하다', 2)동사 '풍부하게 하다', 代表: 1)명사 '대표', 2)동사 '대표하다'.

8) 당연히, 분류의 대상인 詞의 범위와 분류결과는 각 시대와 논자마다 달랐다. 중국에서는 王力 등이 덴마크 언어학자 오토 에스페르센의 '三品說'을 받아들이면서 '詞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일본 용어 '品詞'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 때의 '品'은 '種類' 외에 '等級, 等位'의 의미를 함께 지니고 있다.

9) 일본 한자어 '品'의 의미는 대체로 다음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1)물품, 2)등급, 옛날의 벼슬 등급, 3)종류, 4)품성, 5)구별 평가하다.

10) 한국 한자어 '品'의 용법 분류: 1)물품: '물품 작품 품질 품명 품귀 품중', 2)품성, 품질: '인품 품격 품성', 3)등급: '上品', 4)벼슬등급: '정일품'. (참조: 새우리말큰사전)

+명사어소' 형식의 수식구조를 가진 명사는 별로 많지 않고(예: 分野, 分段, 賣物), 이 형식의 단어는 대부분이 동목구조의 명사 또는 동사로 해석된다(예: 理事, 成功). 같은 수식구조이지만 어소배열 관계상 '品詞'(동-명)은 '詞類, 詞品'(명-명)보다 훨씬 드문 형식이다.

결론적으로 한국어의 문법용어 '品詞'는 '詞類'나 '詞品'에 비해 덜 좋은 용어다. 기본적 개념을 표시하는 용어에서 어소의 의미나 구조가 일반 언어의 것과 너무 다르면, 그 용어의 사용자에게 상당한 부담을 준다.

#### 4. 결론

한자어는 한국어에서 뺄 수 없는 중요 부분이며, 학술용어의 주된 체계를 한자어로 이루어나가야 하며, 수많은 영어로 된 용어들을 한자어로 의역하여 한국 학술용어의 체계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중국문법학자들은 중국용어를 번역할 한국용어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통용성 체계성 정확성 축약성의 네 가지를 지향한다. 현재 중국문법용어의 번역어가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은 주로 통용성과 다른 세 지향이 충돌하여 빚어진 것이다. 여기서 통용성은 기존 용어를 사용하여 새로운 전문용어를 늘리지 않으려는 일종의 경제성 추구이며, 체계성 정확성 축약성은 한자어가 전문용어로서 지니는 강점을 표현한다.

근대 일본 학술용어와 함께 도입된 문법용어 중 일부는 '단어, 형태소, 품사'의 예에서 본 바와 같이 조어법(어소구조)이 특수하고 용어의 체계성을 해치고 있다. 그런데 중국문법학계는 학술용어의 통용성에 대한 고려 때문에 부적합하거나 덜 좋은 기존 용어들을 교체하는데 주저하고 있다. 이것은 흔히 영문 용어를 그대로 차용하는 사회일반 및 다른 학계의 상황과 비교할 때 좀 지나친 점이 있으며, 기존의 일본 용어를 과감히 바꿔 체계성과 정확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전문용어의 체계를 잘 갖추기 위해서는 자국어와 기존 전문용어의 조어규칙을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초중고등 교육과정에서 국어 및 한자어의 복합어 조어법이 교육되어야 한다. 근본적으로, 새 물질과 개념의 발명 현장에서 이름짓기가 잘 시작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한자어 전문용어의 훌륭한 체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한국·일본 한자어의 조어법을 중국어 조어법과 함께 충분히 연구해야 한다. 여기에는 통사적·의미적 구

조관계를 포함한 각종의 조어방법과 전문용어에서 체계와 구조를 표현하는 방식들이 포함된다. 한국 한자어는 한국어의 영향을 받아 특수한 조어방식을 사용한 경우가 많다. 예를들면, '民統線, 俗離山'은 목적어-동사 구조를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여러 겹의 수식구조만으로 용어를 만들기 보다는 다양한 구조를 쓰는 것이 이해를 도울 수도 있다(예: '同音異義語'와 '音同義異語').

우리는 이미 한자어를 한글로만 쓰는 시대에 진입하고 있으며, 기계번역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데, 이들은 모두 어소 표준화의 문제를 제기한다. 한국어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한자(즉, 표기는 한글이지만 의미는 한자인 말)들의 용례를 조사 분석하여 기본적인 한자어 어소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 【참고문헌】

- 새우리말큰사전, 신기철·신용철 편, 삼성출판사, 1985년 제6차수정증보 제3판, 3856쪽.  
 現代漢語詞典, 商務印書館, 1996년 수정3판, 1722쪽.  
 言語學大辭典(術語編), 동경:삼성당, 1996.  
 實用漢語語法大辭典, 陳高春 주편, 북경 職工教育出版社, 1989년, 1133쪽.  
 現代漢語語法術語詞典, 朱一之, 북경 華語教學出版社, 1990년, 501쪽.  
 국어학사전, 한글학회 1995, 1122쪽.  
 언어학사전(개정증보판), 이정민, 배영남, 박영사, 1987년 초판, 1990년 2판, 1076쪽.  
 언어학사전, 조성식, 신아사, 1990년, 1726쪽.  
 日本文法事典, 北原保雄 외 4인, 有精堂, 昭和56년 초판, 600쪽.  
 이용주 1974, 한국 한자어에 관한 연구, 삼영사, 187쪽.  
 이기문 1990, 학술 언어로서의 한국어, 한국어의 발전방향, 민음사, 11-22.  
 심재기 1990, 한자어의 과거 현재 미래, 한국어의 발전방향, 민음사, 73-93.  
 중국언어연구회 1991, 중국어 문법용어 통일 시안, 중국언어연구 1, 310-315.  
 최금단 2001, 현대중국어와 한국 한자어의 대비 연구, 한신대학교 출판부, 310쪽.  
 최병덕 외 역, 李德律, 程美珍저, 1994 《현대중국어실용어법》, 고려원, 439.  
 박춘범 1990 《현대중국어실용문법》, 대구: 중문출판사, 394.  
 맹주익 1992 《현대중국어문법》, 청년사, 679.  
 윤화중 외 역, 劉月華, 潘文娛, 故韓 저, 1988 《現代中國語文法》, 서울: 大韓教科書, 46  
 1.  
 孔在錫, 李在敦 1988 《中國語學概論》, 韓國放送通信大學, 382.  
 허성도 박종한 오문의, 1995, 중국어학개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342쪽.  
 이근효 1997, 중국 현대어문법의 용어 문제, 경성대 중국문제연구 9, 47-72.

맹주역 1987, 중국어 문법용어 소고, 외대 중국연구 10, 295-317.  
이환목 1999, 전통문법용어의 의미, 한글 244, 173-189.

### 【中文提要】

漢字詞彙是韓語不可缺少的重要部分,尤其是學術用語。爲了長期發展學術用語的體系性,我們需要把很多英文術語翻成漢字術語。

韓國的漢語語法學者當翻譯漢語語法用語的時候主要考慮如下四個標準即,通用性,體系性,正確性,縮約性。其中通用性的標準指向盡量避勉增加新的專門術語來體現語言的經濟,而跟其他三個標準發生矛盾,結果一個漢語語法用語常常會翻成幾個不同的韓語詞彙。體系性,正確性,縮約性這個指向主要反映漢字術語的特點和長處。

從日本傳來的語法用語常常是用特殊的詞素結構而有害於專門術語的體系性(例:單語,形態素,品詞)。韓國的漢語語法學界可以考慮把多量的日本漢字術語換成新的詞彙來提高學術用語的體系性和正確性。

爲了發展具有體系性的漢字術語,我們要把韓語及漢字詞彙的造語法和韓語基本詞彙裏所用漢字詞彙的意義及用法好好地整理出來,教給中小學生好讓他們在生活裏能自由地和正確地造出新詞。

### 【주제어】

전문용어, 문법용어, 한자어, 조어법, 통용성, 정확성, 축약성, 체계성, 표의성